

배포

2026. 5. 19.(화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‘2025 좋은 이웃상’ 수상

- 주한미군과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상생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 추진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‘2025 좋은이웃상 (2025 Good Neighbor Award)’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.
 - ‘좋은 이웃상’은 주한미군이 한미 우호 관계 및 지역사회 협력 증진에 기여한 개인,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으로, 지난 2003년부터 이어져 왔다.
- LH는 지난해 주한미군과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.
 - 지난해 6월 LH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‘명예를 품은 집’ 사업을 추진했다. LH 임직원과 주한미군 장병 등 40여 명이 참여해 오래된 지붕과 데크, 처마 등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롭게 단장했다.
 - 지난해 12월에는 장애아동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「LH 러브하우스 BF^{Barrier-Free}」의 일환으로, LH 임직원과 주한미군이 함께 연말 맞이 선물 나눔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.
 -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환우들을 대상으로 물품 나눔 및 주한미군(8th Army Band) 군악대의 위문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.

-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“앞으로도 각계 다양한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 시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총무처	책임자	팀 장	진효정	(055-922-4302)
		담당자	차 장	강홍석	(055-922-4327)